

교회 표

신랑인 예배
천국 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성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일집)

구세주

보혈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하게 되며 목자들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성경학자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처음 찾아왔을 때에 그녀의 나이를 대략 14세 내지 15세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어린 나이의 처녀 마리아가 자신의 몸 안에 메시아를 받아야 하는 결정은 영원과 온 세상과의 관계가 얽혀 있는 막강한 일이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눅 1:34)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확신시킨다. (눅 1:37)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것인가? 이제 그녀의 응답만이 남아 있다. (눅 1:38) 공포에 질려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곳을 제공하여 주셨다. (눅 1:36, 39, 56)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꿈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몸 안에 메시아가 계심을 알았다. (눅 1:42)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메시아를 낳을 엄마로서의 준비와 세상에 소망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리아는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을 만나야 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상처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요셉은 분명히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그때에 천사는 요셉을 향하여 마리아가 미친 짓도, 황당한 이야기를 꾸며 낸 것도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마 1:19, 20) 마리아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가 곧 메시아임을 알려 주었다. (마 1:22) 요셉은 자신이 치러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데려왔다. (마 1:24, 25)

성경의 말씀은 각각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왜 만삭이 된 마리아는 3,4일을 걸쳐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할 해야 했을까? 왜 예수께서는 말 구유에 태어나셨는가? 천사들은 왜 목자들을 찾아가서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나셨음을 알려 주었을까? 베들레헴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곳으로 예언된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다. (미 5:2) 또한 베들레헴은 성전에 바쳐질 양들을 키우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양”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 (마 8:20) 인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말 구유에 태어나심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눅 2:6, 10-12) 마지막으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만민을 위하여 오심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눅 2:13, 14) 목자들에게는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희생 양이 도착하는 것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른 곳에서 기다리는 높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이사야의 예언이 실존적으로 완성되기를 기다리면서 성전 안에 있던 자들이었다. (사 9:6)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결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던 그날에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 만약 만나가 기다리는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을 포기했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예루살렘의 구속이 되심”이라는 확실한 증언을 받지 못하였을까? (눅 2:38) 오들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적인 사건을 볼 수 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왔다. 곧 만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였다. (눅 2:39)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신들의 팔에 안고 있으니 오히려 유대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다. (마 5: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개개인의 삶은 모두 의미 있는 삶이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몇 달 동안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창조로부터 시작하였다. 하나님 혼자가 아닌, 딸을, 곧 예수님을 그와 함께 하셨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향하여 정배를 드리게 될 때에도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시다. (요 5:6, 7, 11-13)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림은 말씀에서 참 의미를 나타낸다. (요 1:14)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은 스스로 그의 모든 신적인 영광을 내어 놓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제대 요한은 자신이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라고 보내어진 자임과 또 하나님의 양이 무리 중에 서 계심을 알고 있었다. (요 1:27, 29) 그는 하나님의 양이 오신 것과 말씀이 희생 양이 되신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들을 함께 이끄는 것을 약속하셨다. (마 28:20) 크리스마스의 어떤 양으로 말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성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주시며 지금도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აღ드리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아멘.

2007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포부와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자신의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렘 4:13)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렘 6:17) 특히 올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마 16:24) 매순간 숫구치는 죄의 유혹을 버리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십시오. (골 1:20)

“교회의 창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찬 242장)의 2007년 예배 기원 찬송처럼 오직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지에 보혈이 증거되는 현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하나가 됩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렘 4:4)

*오늘(7일), 2007년 제1차 성찬식이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What kind of appreciation is in your heart?

⁽⁹⁾ And He also told this parable to some people who trusted in themselves that they were righteous, and viewed others with contempt: ⁽¹⁰⁾ "Two men went up in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 ⁽¹³⁾ "But the tax collector, standing some distance away, was even unwilling to lift up his eyes to heaven, but was beating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¹⁴⁾ I tell you, this man went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but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Luke 18:9-14)

In today's Bible verses, Jesus talks about the prayers of two believers. One believer is a Pharisee, a highly looked upon religious official. The other believer is a tax collector, a very lowly viewed government official. Both entered the temple with hearts of appreciation to the Lord. As a creature, not a creator, having a thankful heart to the Lord is a beautiful thing; however, the kind of thankfulness you offer to God is significant. Appreciation comes in two forms: flesh or spirit. You either appreciate in the flesh or in the spiri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For the flesh sets its desi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do the things that you please." (Gal. 5:17) Like the Pharisee, most Christians pray with appreciation in the flesh. What you think is what you pray. Very few of today's believers pray like the tax collector, with hearts of appreciation in the spirit. What kinds of things do you think about? What kind of appreciation is in your heart?

The Pharisee was unaware of his greatest need. He prayed,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people; swindl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I fast twice a week; I pay tithes of all that I get." (vv. 11&12) He honored himself. He started with thanksgiving, but the wrong kind. This man was not really thinking about what God's grace had done for him, but rather what he had done for himself. He had the wrong attitude. He focused on human effort. My dear friend, you need personal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Spiritual things cannot be earned by good works, but only through faith. Faith is a gift,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Eph. 2:8&9) The tax collector knew he was a sinner in need of saving. He prayed,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v. 13)

The Pharisee was unconcerned about the tax collector.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filled him with pride rather than compassion. True appreciation produces thankfulness for living. This man did not love his brother. He was not thankful that the tax collector came to God's house to pray. Real appreciation comes through real practice. If you are truly thankful for salvation, you tell others of Christ. If you are truly thankful for your provisions, you

share them with others. If you are truly thankful for kindness, you pass it on. If you are truly thankful for fellowship, you extend fellowship. If you are truly thankful for prayer, you pray for others. True Christians care about others more than themselves. The tax collector was very concerned about the Pharisee. He stood some distance away from him, and was even unwilling to lift up his eyes to heaven. (v. 13) He placed others above himself.

The Pharisee was unchanged when he left God's house. The way he came in was the same way he left. He did not receive God's grace. True appreciation always changes you. This man went to the best place, the temple, but it did not mean anything to him. He went to the temple for a good purpose, to pray, but he did not get anything. He wasted his time because he went home the same person. Right now, millions of people go to church, but they leave unchanged. They are filled with their own personal desires and caught up completely in the flesh. Please, do not let this happen to you. The tax collector faced his sin. He came to God's house looking for forgiveness. He was beating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v. 13) He confessed he was a sinner. He felt the presence of God there in the temple because he was humble. The tax collector went home a new man. He went home forgiven, justified by faith. Jesus said, "I tell you, this man went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but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v. 14)

The tax collector appreciated God's grace. How about you? 1 John 1:9&10 say,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f we say that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a liar and His word is not in us." Are you a sinner, or not? Do you need the blood of the Lamb, or not? Do you care about others more than yourself? Does coming to church on Sunday change you? Do you realize how wonderful, how beautiful, and how awesome Jesus Christ is today, yesterday, and forever? Have you figured out that apart from Christ you can do nothing worthwhile? As a Christian, does the Holy Spirit control you? Do you live in the spirit, or in the flesh? Right now, I want you to really think about what kind of appreciation is in your heart. 🙏

다음 주일 설교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 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②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③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④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9~14)



김성완 목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신자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무척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매우 천대받는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는 육신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의 감사는 육신 또는 영적인 것 둘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처럼 육신적인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기도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그 세리처럼 영적인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구원 받음을 감사하라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례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11,12절) 그는 사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감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지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믿음 자체가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엢 2:8,9) 그 세리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13절)

생명 있음을 감사하라

바리새인은 세리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가슴에는 교만이 팍 차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생명을 대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형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리가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온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는 실체적인 행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구원에 대해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주의 선하심에 감사한다면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진정으

로 주님과 교제에 대해 감사한다면 그 교제의 지경을 넓혀갈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을 배려했습니다. 세리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13절) 세리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겼던 것입니다.

은총을 통한 새 삶을 감사하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언제나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큰 축복의 장소인 성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결국 전혀 변화되지 못한 채 이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아무런 변화 없이 떠나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개인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완전히 육에 속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직시했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13절)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춘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세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용서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14절)

심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는 참 교회

세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1:9,10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어떤 양의 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까? 모든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 속에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찬송과 말씀으로 가득한 성탄의 은총은

지난 2006년 성탄절은 은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탄절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감격으로 가득한

참 주님 탄생을 기뻐하는 축제였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 기쁨의 간증들!

기적의 날 부르는 눈물의 찬양

금요일회 때마다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귀중한 보배", "그 어린 주 예수" 등의 찬양을 부르며 저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미리 준비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고, 기대와 기쁨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선부 지체들을 위해서 풍역을 하며 "거룩한 성"을 부를 때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나! 어찌 참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저는 말씀은 마치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 말라"는 천사의 음성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정말 기적입니다. 저 같은 농부의 딸을 위해서도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사실이 기적이 아니고 뭘겠습니까? 몇 번의 유산 큰 낙망 중에 있던 저를 회복시킨 주님의 손길은 분명히 기적의 손길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제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100% 저의 전부를 드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남은 삶도 주님께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결심하여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참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오직 은총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김영리(내외선부)

당자를 기적의 세대로 세워 주신 예수님

2006년은 새 생명을 얻었던 귀중한 해입니다. 참으로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배는 새롭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드러났습니다. 굳이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는, 배반한 죄 사마리아인과 화평하시려고, 주님으로서 가장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어서 해마다 죄인 위해 오셨네."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아무런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십자가 생명의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할렐루야를 취합니다. "네, 하나님. 마땅합니다. 모자랍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거룩한 성은 품도 못 품 자아 추구, 꼭 대기에 서 있던 인생이 왕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열었습니다. 내 민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 귀한 가치가 내 안에 있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이런 안 바뀔수 못 바뀔수. 이 예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이며 선물이에요. 복음이 진정 내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기적, 그로 인해 죄인이 구원받은 기적! 당자를 받아 주신 것도 기적이니 데 가락지도 끼워 주시고 웃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당자를 기적의 세대로 일으키시고 이 복된 소식의 증거자로 삼으시려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눅 2:20) 성탄의 목격자, 증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

김진미(대학부)

크리스마스의 기적

어린 시절, 불교 신자이신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 주신 과자 한 보따리를 들고 동생이랑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그 때 당시 불신자였던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발에 채이는 돌멩이보다도 의미 없는 것이었다. 1991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교회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쁘다 주 오셨네." 하면서 마치 이 정도면 예수님께 체면치레는 다한 듯 만족하며 형식상 예배를 드렸다. 마음은 온통 친구들과의 모임, 멋진 사람과의 데이트, 영화, 선물... 거기서 좀더 신실하면 교회 성탄 행사에만 마음이 가 있었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신자들끼리 인사를 주고받지만 모두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갈구하는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저 전하고 쓸쓸한 크리스마스로 지나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날이 아니었다. 작년 여름, 금요일회 때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자고 하셨다.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바람 쐬며 뜬금없이 웬 크리스마스 찬송? 아직 겨울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좀 더찍은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메시지를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어느새 2000년 전 주님이 누우신 마굿간으로 날 이끌고 갔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천한 목자들이 발견한 그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셨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늘 있는 귀엣 시험으로 마음은 온통 세상의 염려와 불신과 낙심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은 출고 더러운 말 구유에 누우셨지만 내 심령에는 예수님을 위한 그 말 구유만큼의 공간도 없음을 보고 처음으로 기쁜 크리스마스에, 성탄 예배 때 눈물을 흘렸다.

2006년 성탄절 예배! 온 성도가 찬양으로 하나 되며 기적의 메시지 앞에 기뻐하는 모습 속에 나 같은 죄인이 있음을 감지했다. 내 대속하기 위해 만왕의 왕이 구유에 오셨건만 세상의 정욕을 찾아 헤매며 외식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모습을 회개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 버렸다면 어찌할 뻔했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어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진실로 찬양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천사들이 기뻐 찬송하건만 "너는 마음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악한 마귀는 때로 나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한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있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끝까지 따를 때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 "할렐루야"를 부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마침내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아멘.

김정남(집사, 16교구)



2007년, 삶의 원동력!

주님의 교회를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갈 은총의 종인들은
2007년 첫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종할 보혈의 증인들이 사람에게가 아닌 십자가의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짐하는 참 고백들!

은총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워네, 주 예수 감람하사 피흘려 샅으니 땅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며 ‘거룩한 성’을 부르며 ‘이곳이 가장 복된 장소구나!’라고 생각할 때 뒤에서 어린 아이의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귀가 거슬렸다 자리를 잘 못 잡았다는 불편함으로 ‘예배드림기에 산만해 지겠구나!’라고 판단하며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 어쩔지?’하는 동안에 체념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의 마음을 가득 가득 채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총, 보혈의 능력, 보석 같은 주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너 자신을 부인하라! 회개하라! 사람들이 너를 누굴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내게도 있기를 진실로 기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며 내 마음 속에 살아 계시길!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거듭 기도하였다.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을 부인하게 하소서, 은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보혈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심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같은 은혜를 받으며 졸 전에 했던 나의 걱정이 떠올랐다. 나의 신령한 예배를 방해할 것만 같았던 ‘내 뒤에 있던 아이’는 오히려 뒤에서 ‘아멘’을 연발하며 나에게 오히려 은혜를 끼쳐왔다. 참으로 주님의 은총으로만 넘치는 예배였다.

(이선자교사, 유아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영생을 사모하며, 확신하면서 주일을 지키며 봉사하는 신앙으로 살던, 어느 날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Are you a real christian?”(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확실히 “Yes.”(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가운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고 내 속에 켜켜이 있는 욕심들이 많았고, 믿음은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한 해 주님은 나에게 회개와 기회를 주셨다. 귀중한 목말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믿음(마 26:7~10)을 주셨다. 매순간 나의 마음이 변심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때마다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힘썼다. 특히 단순히 흥겹게만 부르던 나의 찬양은 이제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간절히, 간곡히 주님께 올려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삼탄 예배에 이은 신년 감사 예배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영혼의 만족을 느끼게 되었고 ‘거룩한 성’과 ‘할렐루야’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매이게 하는 은총으로 가득했다. 이제 2007년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반 나에게 남았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작년 내내 매순간 회개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신 이유가 2007년을 위함이 아닌가! 오직 예수님의 활기를 풍기며 내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도했다. 내가 원하는 삶,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데 순종하라’고 기도하며 다짐한다.

“가장 확실한 구원의 표적이며 승리의 표적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수자(권사, 1교구))

구제 불능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나를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아주 특별한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보다는 나를 앞세우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이성적인 생각들을 사랑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던 기도원에 며칠간 머물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뭔가 기적을 경험해 보고도 싶은 매우 이기적인 인간이다. 추운 겨울, 이른 아침부터 교통 정리를 하시는 봉사자들을 보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싶다. 그 밖에 도 각자 자기 생활을 회생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럽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죄인 99명보다는 나 같은 구제

불가능한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와서 일했던 포도밭에서 해질녘에 나타난 내가 그들과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 고 하니 정말 부끄럽지만 한편으로 정말 고마운 일이다. ‘예수님은 정말로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요즘 나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 자주 눈물이 난다. 오늘 신년 예배의 찬송을 부를 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눈물을 주셨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2007년 한 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짜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다. 작년에 선교 가면서 외웠던 전도 문장 30여 개와 영접 기도문을 다시 소리내어 천천히 외워볼까 한다. 얼마 안 되는 문장들이지만 여러 번, 특히 크게 영어로 외울 때 그 속에는 깊은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송중석(집사, 4교구))

지난 2006년 성탄절 예배와 2007년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같은 은총이 고스란히 담긴 특별 순서지는 다른 어느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탄절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 순서지를 2007년 한 해 동안 잘 간직하며 매순간 예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2007. 1. 3)

어떠한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2:6~16)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고 있다.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1, 2) 습관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의무적으로 행하는 봉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는가?’의 문제이다. 교회 안에서와 모습과 밖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을 알았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만 할 뿐 실제 우리의 삶은 자신의 영광과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바울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은 율법에 철저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였다. 결국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전 2:6~8)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마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예수님에 관한 지식,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던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마 16:16~23) 이처럼 우리의 신앙 경험, 지식,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연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고전 2:14)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인 것이다. 성경에 매우 박식하였고 경건한 니고데모는 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 왔다. 그에게 예수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이 땅의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도다”라는 말뿐이었다. 이처럼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사람들의 종말은 죽음뿐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올바른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겠는가? 그러므로 자연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요 6:37)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13) 자연적인 사람은 반드시 보혈로 거듭나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신자이다. 신령한 사람은 영원한 수령에서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은총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사람이어야 한다. (고전 2:15)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고전 2:12)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신령한 사람이 된다. (고전 2:13)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받는다. (요 15:19) 한때 고난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베드로는 보혈의 은총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가 신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사망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으

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 4:12~14) 신령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자연적인 사람도, 신령한 사람도 아닌 중간에 속한 사람이 있다.

중간에 속한 사람 중간에 속한 사람은 곧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고전 3:1) 이 사람은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누리고 싶어한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때로는 하늘이 주는 신령한 은혜로 기뻐하기도 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만든다.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세상에서 성공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 교회와 세상에서 동시에 인기를 누리려고 한다. 이 사람은 분명히 가짜이다. 중간에 속한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이 예약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인가?’ 2007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도구인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예, 아니요.”가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 2:15)로 가득한 사람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엡 6:12) 우리가 진실로 보혈로 거듭난 신령한 사람이려면, 율법의 욕심을 따라 썩어버릴 구름을 과감히 벗어야 한다. (엡 4:21, 22)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삶을 진실로 회개하고 매순간마다 보혈의 은총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엡 4:23) 하나님을 통해 하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주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엡 4:24)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갈 5:16, 17)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자. 이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 465장) 신령한 자는 나의 자아가 없는 것이다. 죽을 때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보혈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수요 예배를 통한 은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늘(2006년 11월 22일), 수요 1부 예배의 말씀은 “다른 것”(살전 4:13~18)이었다. “소망이 없는 자와 소망이 있는 자, 부활 강림을 믿는 자와 아니 믿는 자.” 항상 나타내며 배설 위험이 있는 나에게 다시, 한 번 죄로 가득한 나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다. 특히 말씀 중에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사무쳤다. “사람은 미련하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일이라면 주 저하지도 아끼지도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 집사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분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 생활을 하는 집사님이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고 따뜻하게 해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는 헌신이 있었다. 이처럼 신실하신 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장례식에 참여한 많은 교우들은 그분의 이름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한결같이 말하였다.

소천하신 그 집사님을 떠올리며 나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내가 남기고 가는 것,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를 저 자를 남기고 싶은 데는 고려할 것을 수 있고, 공로를 남기고 싶은 데는 우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화려한 예식에는 자신들의 환락과 부, 명예, 신분을 나타내며 자신의 얼굴이 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보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가? 주님 것을, 주님이 이루신 일에 쓰임 받은 자로서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공로로 앞세우고 싶고 또 앞세우지는 않았는가? 나는 이 물음 앞에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가장 높은 신봉이면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머리 돌 곳도 없었고 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놓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회개하는 속죄함, 자신을 부인하라는 겸손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마음임,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를 부르시기 전에...”

김재영(권사, 11교구)

십자가로 총명한 젊은이들이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제2교육위원회



전선현 (장로, 제2교육위원장)

제2교육위원회는 고등부, 대학부, 청년 1부, 청년 2부로 조직되어 있고 1,800여 명의 젊은이들과 100여 명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등부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대학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7세까지의 연령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만 군복무와 학업 등으로 연령을 초과한 학생들은 예외), 청년 1부는 34세까지의 연령으로 미혼을 원칙으로 하며 결혼하였을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청년 2부로 동반하도록 권하며, 청년 2부는 35~39세의 젊은이들로, 신혼가정팀, 기혼팀, 미혼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 충실한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은 모든 젊은이들의 심령을 구주 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종상한 대로 너와 모든 것을 채우시라." (빌 4:19)

다음 세대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고 갈 젊은이들은 말씀이 주는 은혜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주일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성경공부까지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은혜가 고스란히 교회로 다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으로 총명한 이들이 교회 학교의 각 부서와 찬양대 등에서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고후 2:15) 또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젊은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혈로 뜨거운 젊은이들을 주일 5부 예배 시간에 더욱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 안에 새 헌금 위원으로 예배를 직접 섬기고 있으며, 예쁜 찬양대(고등부)와 벨 열 찬양대(대학) 및 오케스트라, 핸드벨 연주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 제2교육관은 십자가 복음의 본부입니다.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학부와 청년 1부는 집회와 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며, 고등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메시지에 한결같은 은혜로 충만해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제2교육관, 집회와 성경공부를 마친 청년 1부 지체들의 청소로 깨끗해진 집회실을 보면서 단 순히 다음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후배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온전한 믿음(히 10:22)을 느낄 수 있어 감격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젊은이들은 총현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이 이들의 마음 중심에 있기에 총현의 미래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복음에 집중하며 천국일꾼으로 훈련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장학생들을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400여 명의 장학생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젊은이들과 함께 2007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 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교회의 참된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고등부, 대학부, 청년 1부, 청년 2부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부자 청년(마 19:22)이 아닌,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나 사백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시 110:3)

끊어진 나의 팔을 붙드신 예수님!

암으로 인해 유방 하나를 절제한 지 1년, 또 그 기간 중에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을 하고 마 차에서 깨는 순간, 넓은 교실 같은 공간에 나와 함께 누워 있는 다른 환자들이 보였다. 그 순간 나의 심음은 찬송으로 변하였다. 찬송가 370장 "어둔 밤 쉬 되리나...할 수만 있는 대로 함께 일하라." 원래부터 천식으로 고생하던 나는 수술 후에 더욱 약하여져서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연약한 나의 육신보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보게 하였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큰 행복을 느꼈다. 이 행복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거였다.

그런데 이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부터였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주님과 친밀하지도 않았고 단지 하나님에 있다는 정도의 믿음뿐이었다. 이처럼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과연 말씀은 '능력'이었다. 매에 매 때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바꾸었던 것이다.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하루 하루 사는 것이 어느 사람처럼 평탄하지 않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오히려 이러한 고통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였고, 말씀만 의지하게 만드셨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멀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나 자에게 이기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아 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 외 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사 35:3,4)

나의 한 쪽 팔은 수술로 인하여 아귀 코끼리의 다리 같이 매우 굵다. 나는 나의 굵은 팔을 볼 때마다 나를 더 굳세게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팔이 생각난다. 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고 동락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비록 지금은 육신이 연약하여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에게는 항상 찬송이 넘치고 주님과과의 깊은 교제로 나의 삶은 항상 풍성하다.

홍문숙(권사, 13교구)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한 우리 구역이 되기를...

구역장 직분을 맡은 지 2년째다. 지난 2006년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구역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아직 둘째 아이가 어리고, 어르신들과의 교제가 쉽지 않아서 좀더 깊은 은혜를 많이 나누지 못해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본래는 나에게 있음을 깨닫기에 요즘은 더욱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있다.

우리 흥은구역은 구역이 넓고 어르신들과 아기가 있는 가정이다. 147정 중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 모이기도 쉽지 않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섬기려 한다. 구역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과는 전화나 찾아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 한 분 한 분이 혼자자 아니라 흥은구역 식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린다. 앞으로도 우리 구역원들이 영적인 동역자가 되기 위해 서로를 섬기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한다.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는 뒤처진 후배를 이끌고 이끌림을 받는 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여 모든 구역 식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합함을 아시죠, 나의 연합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까. 제가 먼저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하여서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희선(집사, 12교구)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나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	조성현	19	고등부	이형선(12)
2	김은정	19	고등부	임태영(8)
3	이주현	19	고등부	오다현(13)
4	박주원	19	고등부	김현태(10)
5	김정숙	12	고등부	박진희(5)
6	김정경	5	고등부	이지영(1)
7	김경민	19	대학부	조현국(19)
8	김지혜	14	청년2부	신상우(14)
9	박현미	1	청년2부	
10	이준옥	2	청년1부	박성명(11)
11	김정숙	2	청년1부	황정희(2)
12	조성분	10	청년3부	김만호(10)
13	피루메이	19	외선부	최대환(7)
14	황예은씨	13	대학부	이광호(3)
15	민영진	19	대학부	신재승(17)
16	김영태	14	청년1부	강재현(1)
17	조은영	19	청년1부	이은혜(19)
18	정유식	19	청년1부	김미현(19)
19	정원태	12	청년1부	손재아(19)
20	한성진	19	청년1부	지규성(6)
21	정태준	19	대학부	권덕용(1)
22	조진영	1	청년1부	이숙희(1)
23	강태하	19	대학부	허 함(4)
24	조성경	19	청년1부	임혜인(19)
25	박민지	19	대학부	김현정(9)
26	전드라	19	외선부	노수식(3)
27	장혜민	19	청년1부	안윤호(15)
28	진정현	19	청년1부	김창민(13)
29	유정옥	1	청년1부	김영숙(1)
30	최희선	8	청년1부	박혜순(16)
31	영호미씨	19	외선부	
32	전수현	19	대학부	나지희(19)
33	이민선	13	청년1부	전희희(13)
34	이유나	19	고등부	매상숙(12)
35	문지혜	19	중등2부	우정은(19)
36	최수혜	19	대학부	이훈희(1)
37	이예리	19	대학부	이정희(12)
38	송은영	19	청년1부	

* 흥은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